초보 취준생 6人 '멘탈붕괴' 취업면접 도전기 시선집중

무한도전 멤버들, 높은 취업문턱 온몸 체험
실제 취준생 도움 되는 특급 정보들 선사해

MBC '무한도전' 멤버들이 제대로 멘탈붕괴에 빠졌다. 초보 취업준비생이 된 멤버들이 취업전쟁에 뛰어들어 높은 취업문턱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

지난 13일 방송된 '무한도전' 553회에서는 초보 취업준비생으로 변신한 멤버들이 온몸으로 체험한 실전 취업면접 도전기가 공개됐다.

프로 예능인인 '무한도전' 멤버들은 초보 취업준비생의 마음으로 입사지원서부터 면접시험까지 직접 경험해보면서 혹독한 '취업전쟁'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를 통해 각 멤버들에 대한 새로운 모습과 실제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급 정보들까지 시청자들에게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알찬 시간을 선사해줬다.

'무한도전' 멤버들의 2018년 첫 도전으로 '면접의 신' 편이 공개됐다. 20~30대 청년들의 새해 큰 소망인 '취업'에 도전하게 된 것. 게임-IT-제과 분야 총 3곳의 면접을 보게 된 멤버들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최선을 다해 면접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멤버들은 면접 전 필수 관문인 각 기업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접 작성하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멤버들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질문에 백지상태가 됐고, 마치 스터디를 하듯 의견을 나누며 간신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자신들은 이번 도전을 통해 면접을 보지만 많은 실제 취업준비생들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면접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면접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조세호는 실제 기업의 인사담당자였던 아버지 앞에서 모의면접과 특별과외를 받았고, 하하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직접 손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면접 당일 멤버들은 3개 기업의 너무도 다른 면접 분위기와 방식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첫 회사는 게임회사였는데, 멤버들에게 다양한 방면의 질문들이 쏟아지며 시작부터 멤버들은 '멘탈붕괴'에 빠졌다.

자신을 '프로못짐러'라고 소개하는 조세호 때문에 웃음이 터진 유재석과 박명수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 위기를 맞으며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질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아무말대잔치'를 보여준 박명수를 비롯 게임회사에서 게임에 흥미를 잃었다고 말한 정준하까지 연이은 실수가 이어졌다.

두 번째 IT스타트업 회사에서는 면접에 더욱 집중하며 솔직히 임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눈길을 모았다. 유재석은 면접관들의 의도를 파악해 차분하게 면접 분위기를 이끌며 면접관들로부터 임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극찬을 받았다.

양세형은 하얀 슬리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똑똑똑, 실내?니다(실례합니다)"라고 센스있는 답변을 해 면접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장난기 가득했던 모습을 지우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 양세형의 활약이 돋보였고 이는 면접관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마지막 제과 기업에서는 조세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3개의 기업 중 유일하게 지필 평가까지 실시하며 '면접시험의 정석'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조세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며 절실함을 보여준 것은 물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면접관들의 호감을 얻어 제과회사 면접에서 최우수 면접자로 꼽혔다.

이어 각 기업의 면접관들이 멤버들에 대한 평가와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솔직한 조언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면접관들은 열정과 자신감을 최고의 면접팁으로 면접현장에서 이력서 속 모습이 아닌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긴 시간 동안 면접시험을 통해 '취업의 세계'를 온몸으로 느낀 멤버들은 쉽지 않았던 면접시험 소감을 전했고, 모두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새해 인사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시청자들은 방송 후 "유재석-조세호-양세형 하드캐리였다!", "너무나 좋은 정보였고 취준생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세호씨 역시 무한도전! 보는 내내 아찔했어요!",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멘탈붕괴에 빠진 멤버들 고생하셨습니다!", "취업준비생분들 모두 힘내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과함께', 역대 韓영화 흥행 8위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등이 주연한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8위에 올랐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다르면 '신과함께-죄와 벌'은 지난 13일 하루 동안 31만537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1255만5594명을 기록했다.

개봉 25일 만에 누적 관객 1255만 명을 돌파한 '신과함께'는 '왕의 남자'(1230만)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로써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영진위 공식 통계 기준) 8위에 올랐다.

'신과함께'는 개봉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흥행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1987'에게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7위 '암살'(1270만) 뿐만 아니라 6위 '7번 방의 선물(1281만), 5위 '도둑들'(1298만)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천만 관객을 넘어선 '신과함께'는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김동욱 등 영화의 주요 인물 외에도 이정재, 오달수, 임원희, 김하늘 등 많은 배우들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에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과함께'는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1편과 2편으로 제작됐으며, 올 여름 2편이 개봉한다.

방탄소년단,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1위…2위 워너원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8년 1월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3일까지 측정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참여지수 495만8448, 미디어지수 416만2560, 소통지수 281만5712, 커뮤니티지수 490만3056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워너원이, 3위는 엑소가 차지했다. 4위와 5위에는 샤이니와 세븐틴이 각각 자리했다.

방탄소년단과 워너원, 엑소, 샤이니, 세븐틴에 이은 30위권 순위에는 갓세븐, 위너, 비투비, 하이라이트, 젝스키스, 슈퍼주니어, 인피니트, 빅뱅, 빅스, JBJ, NCT, 몬스타엑스, 비스트, 블락비, 아스트로, 스트레이키즈, FT아일랜드, 동방신기, MXM, 뉴이스트W, BAP, TRCNG, B1A4, 신화, D.I.P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방탄소년단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연말 시상식과 각종 행사가 이어지면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브랜드 소비와 소통, 확산도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1위로 3개월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는 "행복하다, 사랑하다, 고맙다"가 높게 분석됐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골든디스크, 빌보드차트, 유튜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주토피아'보다 빠른 '코코', '신과함께' 턱밑추격 역주행

애니메이션 '코코'가 역대급 디즈니·픽사 오프닝에 이어 주말 토요일 박스오피스에서 경쟁작 대비 흥행 반등 지수 최고치를 기록하며 3일 만에 누적 관객수 50만을 돌파하며 흥행 신드롬을 가열하고 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코코'는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토요일 하루 만에 30만 이상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53만 명을 돌파했다.

'신과함께-죄와 벌'과는 3천 명의 근소한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했다.

'코코'는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한파에 언 몸과 마음을 모두 녹여줄 가장 따뜻하고 탁월한 선택이라는 실관람객들의 뜨거운 호평과 입소문으로 폭발적 주말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오전 예매율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남은 주말 동안 더욱 거센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코'는 디즈니·픽사 작품 중 주말 일일 관객수 3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역대급 흥행 추이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역대 대한민국 흥행 애니메이션 TOP5에 포진되어 있는 '인사이드 아웃', '주토피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코코'는 폭발적 주말 일일 관객 동원에 힘입어 '겨울왕국'(2014), '빅히어로'(2015), '주토피아'(2016), '모아나'(2017)에 이어 디즈니 왕국의 흥행 불패 신화를 올해도 명백하게 입증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음력 11월 29일)

▶쥐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서 하나가 돼 소리라도 질러보라. 그늘진 가슴속이 확 트일 것이다. 오늘 하는 일이 앞날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듯. 쥐, 양, 용, 토끼띠와 다툼 우려됨.

▶소띠 일요일에 만나자는 사람과 멀리 가지 말라. 자칫 몇 개월 뒤 걱정거리와 연결될 듯. 진실로 그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북쪽은 피하라. 여성이라면 그 남자를 따라 가지 말라. 후회한다.

▶호랑이띠 타인에게 줄 것이 없으면 빨리 줘 버리라. 능력 없다 미루다 화근이 온다. 청탁으로 만나는 2, 5, 9월생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내거나 과장해 말하면 허사가 된다.

▶토끼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 부담이 간다. 그 마음을 감추는 것이 좋을 듯.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기다리면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니 말없이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ㅇ, ㅂ, ㅊ 성씨 참는 자에게 복이 옴을 상기할 것.

▶용띠 따가운 태양이 싫어 시원한 그늘을 찾는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이 고달플지 모르나 오늘이 지나면 그 힘겨움이 행복으로 변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7, 8, 9월생 서쪽이 길.

▶뱀띠 남쪽에 가는 일은 삼가라. 후회하는 날이 온다. 북쪽으로 목적지를 정하면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이롭다.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함이 어떨지. 뱀, 양, 말띠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언쟁을 조심하라.

▶말띠 어두운 밤에 불빛이 필요하듯 그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북쪽에서 사람을 만나면 뜻을 펼칠 수다. 미래를 설계하고, 용기를 갖고 힘차게 행하라. 친한 사람이 금전에 도움 줄 듯. 회색으로 단장.

▶양띠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자기가 들어갈 문이 열리기만 바라고 있는가. 우선 물건을 내려놓고 문을 열라. 가려면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만과 나태함을 버리면 노력에 따른 보람이 있다.

▶원숭이띠 지붕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준비하라. 닭, 범띠가 도움을 준다. 동쪽 사람에게 큰 힘을 얻을 때 노력한 만큼 이뤄질 듯. 사랑하는 자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듯.

▶닭띠 많은 말을 하다 집안일이나 사업에서 숨겨야 할 것을 발설하게 되니 조심하라. 취중에도 그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 토끼, 돼지띠가 듣고자 하니 조심 또 조심. 내 것도 남의 손에 있으면 받기가 힘들 때다.

▶개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 주도록 하라. 운동으로 스트레스로 마음껏 풀라. 욕심은 금물이며 혼자 차분히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기는 후회를 부르니 생각도 하지 말라. 투기나 증권이 그대를 울린다.

▶돼지띠 한순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본심은 그대로 존경하고 있으니 그와 앞날에 큰 뜻을 세울 것이다. 범, 뱀띠 1, 9월생은 믿지 말라.